"지식재산, 기업자산으로 여겨야"

<IP>

지식재산과 한국경제 토론회

"특허 등 IP가 기업경쟁력 근간"

"테슬라는 2003년 설립 후 600개 특허를 내며 전기차업계 1위로 올라섰다. 디즈니는 상표와 디자인으로 매년 92조원을 벌어들인다. 코카콜라는 영업비밀로 130년을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래를 풍요롭게 할 성장동력은 바로 지식재산(IP)이다."

28일 서울 마포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열린 '지식재산과 한국경제' 토론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행사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대한변리사회 등 IP 유관단체 26곳과 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IP는 특허·디자인·실용신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정교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속 일상화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다시 찾으려면 기술 축적을 통한 한계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이때 지식재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S&P500기업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 비중

연도	유형자산	무형자산(지식재산 등)
1985년	68%	32%
1995년	32%	68%
2005년	20%	80%
2015년	16%	84%
2020년	10%	90%

자료:오션토모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은 혁신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축이 지식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제조업, 지역 중심으로 고착된 기업문화 탓에 지식재산 진흥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를 허물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역량을 결집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기업들의 기업가치 가운데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비중이 1985년 32%에서 2020년 90%로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며 "이제 자산 개념을 새롭게 바꾸고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마법가루' 분체 시장 개척한 대가파우더

명문장수기업을 가다

❸ 최은석 대가파우더시스템 대표

'가루 분(粉)'자를 쓰는 분체업은 말 그대로 재료를 가루로 만드는 산업을 뜻한다. 식료품부터 화학품, 플라스틱, 2차전지까지 가루가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업체가 있다. 국내 최초 분체 설비기업인 대가파우더시스템이 주인공이다. 포스코케미칼, 삼성SDI, LG화학, 한화솔루션, KT&G, 3M, 바스프 등 세계적 기업들이 오랜 고객사다.

대가파우더는 부산에서 양조업을 하던 창업주 최대식 전 회장이 1970년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천막 공장을 세운 게 시작이었다. 일본 분체기계 회사인 호소카와미크론 연구원으로 일하다 귀국한 지인이 분체업을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은석 대가파우더 대표는 "분체업은 건조-분쇄-혼합-이송-집진 과정을 거친다"며 "이걸 통틀어 분체 플랜트라고 하는데 국내에 분체 플랜트 기업은 대가파우더밖에 없다"고 28일 말했다.

분체 플랜트가 어려운 이유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100% 맞춤 생산해야 해서다. 대가파우더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다. 초창기엔 변변찮은 설계도 한 장 없었다. 일본 기계를 수없이 뜯고 조립한 역설계 끝에 겨우 제품을 만들었지만 기대 이하였다. 손해가 쌓이고 자금난에 시달렸지만, 최 전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창업 10년이 지나자 품질이 안정화하더니 한국 산업화가 속도를 내면서 수요가 쏟아졌다. 일본에서 분쇄기를 들여오던 대기업도 대가파우더에 줄을 섰다.

최은석 대가파우더시스템 대표가 서울 구로구 본사 연구개발(R&D)센터에서 주요 분체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50년전 日기술 눈칫밥으로 익혀
포스코케미칼·삼성SDI 등에 납품
의료용 지혈제 등 사업 다각화
"사람 존중, 스킨십이 장수 비결"

최 대표가 경영에 뛰어든 시점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일 때다. 프랑스 유학 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최 대표는 자신이 대를 이어 회사를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회사를 물려받자 눈앞이 캄캄했다. 위기의 순간 그는 수출을 떠올렸다. 대표 취임 후 1년 만인 1999년 태국의 SCG그룹에 자체 이름으로 설비를 수출했다. 이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으로 수주 영토를 넓히면서 이젠 연 매출의 40%가량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문제는 또 있었다. '2세 경영'에 대한 회사 내부의 편견에 마주한 것이었다. 30~40년 근속직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에서 먹고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직원들과 함께 작업복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일하다 보니 직원들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직원을 대우하지 않는 회사는 오래갈 수 없다"며 "직원에 대한 존중이 장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대가파우더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만든 의료용 분말 지혈제 '스팁씰'과 링거 내 불순물을 99% 걸러내는 세라믹 주사기 필터 및 수액 세트 '씨아브이인퓨전세트'를 내놓으며 바이오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분말 지혈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기를 통한 사업 다각화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신규 인력 채용 효과를 가져왔다. 2017년 매출 170억원, 직원 수 78명이던 규모는 2019년 매출 263억원, 직원 수 88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320억원가량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강경주 기자

AI 난임치료·향토음식 홍보 … 女 CEO '이색 사업'

제23회 여성창업 경진대회

난임솔루션 만든 카이헬스 대상
브렉소젠·카카오패밀리 최우수상

이혜준 대표

김수 대표

김정아 대표

난임 부부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임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이헬스', 엑소좀(세포 간 신호전달 물질)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바이오벤처 '브렉소젠', 제주 지역 향토문화 지속을 위해 힘쓰는 사회적기업 '카카오패밀리'…. 국내에서 두각을 보이는 여성 벤처들이다. 이 기업들은 최근 열린 '제23회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카이헬스는 지난해 10월 설립한 바이오벤처다. 상태가 좋은 배아를 선별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난임 솔루션'에 주력하고 있다. 배아를 가려내기 위해 육안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게 핵심 경쟁력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난임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 중국은 2020년 기준 난임 치료 시장 규모가 약 260억위안(약 5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11%가량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이혜준 카이헬스 대표는 "카이헬스의 AI 모델은 일반 난임 시술에 비해 15% 이상 높은 정확도로 우량 배아를 선별한다"며 "연구실 밖에서도 배아의 발달 과정을 보면서 환자와 상담할 수 있고 데이터 출력도 간편하다"고 말했다. 카이헬스는 올해 '도전-K스타트업' 왕중왕전 창업리그에서 최우수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 1억3000만원을 받아 사업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브렉소젠은 엑소좀 생산 기술을 확보한 바이오벤처다. 엑소좀은 30~150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크기의 천연 나노입자 중 하나로, 각 세포 속을 드나들며 물질 및 신호 등을 전달해 '인체 속 우체부' 역할을 한다. 세포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 물질을 엑소좀에 실어 다른 세포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신개념 약물 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브렉소젠은 한국엑소좀 연구·상용화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수 브렉소젠 대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연구 지원, 민간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이어진다면 한국이 글로벌 엑소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패밀리는 김정아 대표가 제주도에 세운 사회적기업이다.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좌지역 특산품인 당근 홍보를 비롯해 현지 로컬푸드 식품 제조에 앞장서고 있다. 현무암과 화산송이를 닮은 스위트 카카오닙스, 돌담을 닮은 토피닙스 등 제주도 특성을 결합한 식품도 선보였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여성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알찬 까닭에 '여성 창업의 성지'로 불린다. 최근 5년간 평균 1179개 팀이 참가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수상 시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 지원도 해준다.

강경주 기자

KBI동국실업, 수작업 대체 기술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첫 적용

KBI동국실업은 기존 수작업 감싸기 공법을 대체한 폴리우레탄(PU) IMG 기술을 '디 올 뉴 그랜저'의 크래시패드에 적용해 품질 안정화와 원가절감을 실현했다고 28일 밝혔다.

KBI동국실업은 2019년 9월부터 2년간 10억원을 투자해 PU IMG(In-Mold-Grain) 공법의 감싸기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디 올 뉴 그랜저의 크래시패드에 처음 적용됐다.

크래시패드 상판에 PU를 사용해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감싸며 생산하던 공법을 IMG 기술로 자동화한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불량률을 70% 이상 낮췄다.

민경진 기자

수면 중 급사 막는 아기 속싸개 '눈길'

으뜸중기

애기바당 '모드락 속싸개'

대부분 갓난아기는 생후 12개월까지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잠을 자며 보낸다. 육아용품 브랜드 애기바당은 안전성을 강화한 속싸개 제품 '모드락 속싸개'(사진)로 아기에게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표방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가 2019년 출시한 모드락속싸개는 신체 사용이 미숙한 아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감싸는 제품이다. 여기에 아기가 뒤집어지는 걸 방지하는 뒤집기 방지 쿠션과 아기의 목과 척추를 받쳐주는 쿠션 지지대, 체온 조절을 돕는 이너시트, 배앓이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

이 제품은 유아급사증후군(SIDS)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SIDS란 신생아가 잠을 자다가 호흡이 끊겨 급사하는 것이다. 어른과의 침대 공유, 지나치게 부드러운 침구나 불안정한 자세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모드락속싸개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성현 대표는 "모드락속싸개의 편리함과 차별화한 디자인이 입소문을 타면서 작년에 2억9000만원인 매출이 올해 4억원까지 늘 전망"이라고 했다.

민경진 기자